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14. Vol. 26, No. 3, pp.69-89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

이은영* · 손주영* · 김예슬* · 조재순**[1)]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 전공*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Home Economics related Programs from the First Pilot Schools implementing the Free Learning Semester

Lee, Eun-Young* · Son, Joo-Young* · Kim, Yea-Seul* · Cho, Jae-Soon**[1)]
*Graduate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the outlines of 1) common and free curricula implemented by the first pilot schools and 2) Home Economics related programs from both curricula. This study analyzed the 42 reports from the first pilot schools which implemented the free learning semester in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half of schools set two or more emphasis models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In 15 out of 28 schools, the lesson hours of Home Economics were reduced by one to three hours. Various common curricula were implemented in many aspect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curriculum, evaluation, and subject related career lessons. Free curriculum was implemented in four areas such as career exploration, student optional program, club activity, and art · sports activity. In common curriculum, Home Economics was carried out in 17 out of 39 schools. The Home Economics class included subject related career lessons and improvement of teaching- learning methods. Various interesting activities and programs as a free curriculum were implemented in career exploration, students' optional program, and club activities in 38 schools. The most frequently implemented was the activity program related to food and nutrition. Further research was proposed to develop students' optional programs related to Home Economics subject, responding to their needs.

Key words: 자유학기제(free learning semester), 공통과정(common curriculum), 자율과정(free curriculum),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 가정(Home Economics)

1) 교신저자: Cho, Jaeso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63-892, Republic of Korea
Tel: 043-230-3728, Fax: 043-231-4087, E-mail: jscho@knue.ac.kr
2)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4학년도 KNUE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 형태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Ministry of Education, 2013),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한 학기 동안에는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직간접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수업방식을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행과 같은 학생 참여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Kim, 2013a).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학기의 일과는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나누어,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의 기본교과 수업으로 편성한 '공통과정'(1 9～22시간)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진로탐색활동,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 중심으로 중점화한 '자율과정'(12～15시간)을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Ministry of Education(2013)은 자유학기제의 중점모형을 자율과정의 주요활동에 따라 진로탐색 중점모형, 학생선택 프로그램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예술・체육 중점모형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실행 추진일정은 2013년 2학기에 전국 42개 연구학교에서 첫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800여 개의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서,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50%로 확대,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Choi et al., 2014). 2014년 1학기 현재는 1, 2차 연구학교와 1차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해 2013년에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신설되어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 기획・컨설팅, 교육과정・평가 연구, 연수, 대외협력・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유관 연구기관에서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포럼을 집중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자유학기제 포럼이 교육과정 설계방안,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진로체험 인프라구축 방안 탐색 주제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4차례 시행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하는 자유학기제 관련 직로교육포럼도 3차례 시행되는 등 자유학기제에 관한 집중적인 준비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교과의 입장에서 보면,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공통과정 기본교과로서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등의 개선은 물론 자율과정에서의 가정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가정과 연구는 Kim(2013)의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기술・가정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편뿐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 확대실시는 물론 2016년 전면 실시를 대비하기 위해 가정과 교육의 자유학기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첫 연구결과가 보고된 시점에서 이 시범 운영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주요 현황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활동 중 가정교과와 관련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 형태와 실행사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적용상황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한 가정과의 수업사례와 자율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자유학기제에서 가정과 교육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현황(적용학년, 중점모형, 운영시수)과 가정교과 시수변동을 파악한다.
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운영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 내용과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활동내용 중 가정교과 관련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 형태와 실행사례를 분석한다.

Ⅱ. 관련 문헌고찰

1. 자유학기제 추진배경

1)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의미

최근 선진국들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환경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낮은 상황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자유학기제는 제18대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된 교육정책으로(Kwak, 2013) 중학교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며 인성과 미래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Kim, 2013a). 즉,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 중심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한 학기 동안에는 지필평가가 아닌 포트폴리오, 관찰 등의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점수가 아닌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교육과정 편성은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 중심으로 오후나 전일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시간운영이 가능하다. 수업활동 내용은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직·간접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수업방식은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다(Kim, 2013a).

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의 모델로 삼은 것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TY)로 알려져 있다(Choi, Shin, & Park, 2013). 연계학년제(Kim, 2013b)로 소개되기도 한 전환학년제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교육제도의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2년의 5년제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적으로 한 학년을 추가하여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을 시험이나 성적에만 매몰시키지 않고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총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도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담은 총체적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Jeffers, 2013).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는 1974년부터 실험적으로 시행해오다가 1994년 국가수준 지침(TYP) 적용을 계기로 확산되어 현재 75% 중등학교가 선택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준의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전환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TYCSS), TY 코디네이터 등이 국가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

Kim(2013b)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와 우리나라 자유학기제를 비교하였는데 두 제도의 공통점은 진로교육의 강화, 직업체험 등 체험활동 강조, 시험 부담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있다고 한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환학년제는 학교의 선택 사항으로써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연계 강화 및 개별 학생의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에 1년간 적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독립적이면서도 학습은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학교 밖 자원과의 연계, 교과간 연계, 추후 고등학교 교과와의 연계를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자유학기제는 2년 반의 시범운영과 희망운영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며, 중학교 6개 학기 중 1개 학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전환학년제가 적용된 고1 학생보다 어린 중학생 모두에게 필수로 적용됨에 따른 문제와 기존 학기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m(2013b)은 정부와 교육청, 학교 등 주체 간 역할의 효율적 수행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샘플 교육과정 및 템플릿의 연구개발, 교과간 연계교육 강화 및 교과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다양화 및 평가방안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자유학기제 운영

1) 자유학기제 도입 일정

Ministry of Education(2013)이 제시한 자유학기제 도입 일정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차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단계로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말까지 연구학교 시범적용을 목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방안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시범연구는 2013년 9월부터 42개 연구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주 대상으로, 그 다음 연구학교는 2014년 3월부터 2학년 1학기를 주 대상으로 운영하되 학교의 희망에 따라 다른 학년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2차는 희망학교 확대 운영단계로서 희망학교 모집규모에 제한이 없으나 대략 2014년 20%, 2015년 50% 수준으로의 단계적인 확대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2014년 3월부터 2015년 말까지 지정 운영되며 희망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인프라 확대 방안들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3차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를 위한 제도 확정 및 전면 실시 단계로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운영결과 및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의 대상 학기, 성적 산출방법, 교육과정 개정여부, 단계적 인프라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6월에 자유학기제 실시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학교별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3월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3년에 한국교육개발원 산하에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기획·컨설팅, 교육과정·평가 연구, 연수, 대외협력·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자유학기제에 관한 포럼도 교육부 유관 연구기관에서 집중 시행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주관하는 자유학기제 포럼이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교수학습방법 탐색, 평가방법 탐색, 진로체험 인프라구축 방안 탐색 주제로 4차례 시행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하는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교육국제포럼도 3차례 시행되는 등 자유학기제에 관한 집중적인 준비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자유학기제 편성 운영 방안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 및 편성 운영의 방향에서는 무엇보다 진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3)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에는 진로교육 이외에도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등을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로교육은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확대, 진로학습 토대마련, 진로체험 기회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진로학습, 진로상담 및 검사, 진로체험,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구성 등으로 연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진로학습 토대마련을 위해서는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 개설,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성취지표의 교육내용 반영, 교과통합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학

생의 수요를 반영한 직·간접 진로체험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전일제 진로체험 또는 진로캠프를 2회 이상 실시하며, 전문가 초청강의, 시·도교육청 진로체험 지원센터 구축, 학생 자기주도 진로체험 실시 등을 지원하며 아울러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 전반을 에듀팟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는 학생 요구에 기반 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 제공, 예술(음악, 미술)·체육 교육 내실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관리 등이 있다.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는 기본교과별 특성에 맞는 학생의 참여·활동 중심 교육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블록타임을 활용한 융합·연계수업, 코티칭-코러닝, 직·간접 체험교육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수업시수 증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학교 특색을 살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 등 여유시간을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별학교에 자율성을 준 것이다. 이를 통해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하고 핵심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중학교의 일과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등의 기본교과 수업을 편성하여 '공통과정'(19～22시간)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초한 자율과정'(12～15시간)을 진로탐색활동, 선택프로그램 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중심의 활동으로 중점 운영하게 된다.

이 자율과정의 중점활동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중점모형을 진로탐색 중점모형,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예술·체육 중점모형 4가지로 나누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진로탐색 중점모형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학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과정을 편성한 것이다.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은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교별 동아리에서도 중·장기에 걸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생 선택프로그램 위주로 학교 자율과정을 편성한 것이다. 동아리활동 중점모형은 동아리활동 위주로 학교 자율과정을 편성하는 것이며, 예술·체육 중점모형은 예술·체육 활동을 다양화·내실화하여 운영하도록 자율과정을 편성하는 것이다.

가정교과에서도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 강조,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등 자유학기제의 편성 운영방안에 대한 준비를 통해 공통과정으로서의 교과수업은 물론 자율과정의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3.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의 이해를 돕는 연구(Jin, 2013; Kwak, 2013; Lee, 2013a),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국외사례 연구(Jeffers, 2013; Jones, 2013; Katznelson, 2013; Kim, 2013b; Kim, 2013; Park, 2013), 자유학기제의 운영방안 탐색 연구(Chi, Won, Min, & Sohn, 2013; Choi, Shin, & Park, 2013; Hong, Lim, & Jang 2013; Jeong, 2013; Kim, 2013; Kim, 2013a; Lee, 2013b; Shin, 2013; Choi et al., 2014) 등에 관한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초연구는 주로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단계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유학기제의 도입 배경과 개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국외 사례 연구는 국제포럼 및 세계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Jeffers, 2013; Kim, 2013b; Kim, 2013), 영국의 갭이어(Jones, 2013), 덴마크(Katznelson, 2013)의 포크하이스쿨, 애프터스쿨, 10학년, 호주 IBP프로젝트(Park, 2013) 등이 검토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각각의 제도가 갖는 특징, 성과 및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자유학기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탐색 연구로 Hong et al.(2013)은 자유학기제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학기제

관련 집단인 연구자,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Choi et al.(2013)은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이해당사자(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인터뷰 및 중학생 대상 집담회를 진행하여 자유학기제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행복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활동중심과 체험위주의 수업을 확대해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창의성교육, 폭력예방 및 진로탐색을 위한 토대가 되고 '함께 즐겁게 배우고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실행 학기, 내용,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Chi et al.(2013)은 자유학기제 동안 지필평가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파악하고 학습발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유학기 평가모형은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학생 자기평가를 구성요소로 하며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해서 교사-학생-학부모 연계 체제를 기반으로 하도록 하였다. Jeong(2013)은 자유학기에서는 궁극적으로 중학교에서의 수업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수업의 변화를 수업 형태와 수업 방법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학교 수업의 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몇 개 교과가 협동하는 역량중심 교과통합수업 설계와 운영을 연구하였다. 가정과에서 수행된 유일한 연구인 Kim(2013)의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기술・가정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가정교과 영역에서의 진로교육의 동향을 탐색하고 교과통합 진로교육에서의 핵심성취 기준을 추출하여 가정교과의 진로교육 방향 및 교수・학습과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도입을 앞두고 선도적으로 실행된 의의가 크나 주제가 진로교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본격적인 자유학기제 확대 시점에서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교수학습방법 탐색, 평가방법 탐색, 진로체험 인프라구축 방안 탐색을 위한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최근에는 42개 연구학교 사례연구(Choi et al., 2014)를 통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을 경험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사례를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자율활동, 전반적 학교 운영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성공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Web Site (http://freesem.kedi.re.kr/freesem)에서 2014년 3월 31일 다운받은 42개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운영성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올려 있으며 <Table 1>과 같이 각 교육청별 파일에 2～5개 연구학교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각 연구학교별 보고서 분량은 10쪽에서 130쪽 내외이며 그 제시방법이 다양하였고 교육청별로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 형태로 제작・배포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42개 연구학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주요 현황과, 가정교과 시수변동, 자유학기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에 적용된 주요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파악하고,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활동 중 가정교과와 관련된 실행 사례를 공통과정과 3가지 자율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유학기제 가정교과 운영 사례 자료는 학교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공동연구원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Table 1. Number of pilot schools by Si-do

Sido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광주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세종	합계
N	5	3	2	4	2	2	3	3	2	2	2	2	3	2	2	2	1	42

살펴 본 후, 연구내용을 고려하여 자료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틀에 따라 가정교육 전공 석·박사 과정 3인이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나눠 1차 분석을 하면서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과 활동 구분 등 학교별 차이를 검토 조정한 후 종합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2차 분석 및 협의를 통해 검토 정리하였다. 2차 분석결과 합의된 분석내용은 교과교육 전문가 1인의 검증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종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황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적용한 학년은 총 42개 연구학교 중 2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1학년이었으며, 두 학교 중 한 학교는 2학년에, 한 학교는 1, 2, 3학년 전체에 시범 적용하였다. 이는 Ministry of Education(2013)이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1학년 2학기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지침에 따른 결과이다.

자유학기제 시범연구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자율과정의 4가지 중점 모형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었다(<Table 2>). 자유학기제 시범연구학교에서는 Ministry of Education(2013)이 제시한 진로탐색 중점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예술·체육 중점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중점모형만 적용한 학교(16개교, 38.1%)보다 두 개 이상을 운영한 학교(26개교, 61.9%)가 더 많았다. 두 가지 이상의 중점모형을 운영한 학교는 주로 두 개(10개교, 23.8%)나 세 개(9개교, 21.4%)의 중점

Table 2. Emphasis model of the pilot schools

(N=42)

Emphasis model		Name of schools	N
One-emphasis model (16)	진로탐색 중점모형	청산중, 선운중, 회덕중, 백양중, 용수중, 문경서중, 동변중, 한라중	8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	거원중, 잠실중, 신길중, 대전외삼중, 부산중앙중	5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대전서중, 천내중	2
	예술·체육 중점모형	청북중	1
Two-emphasis model (10)	진로탐색+학생 선택프로그램	북삼중	1
	진로탐색+동아리활동	순천이수중, 연암중	2
	진로탐색+예술·체육	연무중, 삼각산중, 언양중, 줄포중, 김제중앙중, 서귀중앙여중	6
	학생 선택프로그램+동아리활동	창덕중	1
	학생 선택프로그램+예술·체육	•	0
	동아리활동+예술·체육	•	0
Three-emphasis model (9)	진로탐색+학생 선택프로그램+동아리활동	태안여중, 양구중, 괴산오성중	3
	진로탐색+학생 선택프로그램+예술·체육	서석중, 수서중	2
	진로탐색+동아리활동+예술·체육	함태중, 화순동면중, 한밭여중, 서현중	4
	학생 선택프로그램+동아리활동+예술·체육	•	0
Four-emphasis model (4)	진로탐색+학생 선택프로그램+동아리활동+예술·체육	서면중, 동신중, 조치원여중, 거제중앙중	4
Other type of model (3)	교과융합+스포츠선택+동아리	동작중	1
	진로탐색+스포츠선택+문화예술	부평동중	1
	진로탐색+학생 선택프로그램+창의예술	영종중	1

Table 3. Number of lesson hours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N=38 schools)

Total hours	Name of schools (common curriculum hours + free curriculum hours)	N
31	순천이수중(20+11)	1
32	청북중(19+13), 연암중(21+11), 대전서중(24+8), 동신중(25+7),	4
33	부평동중(19+14), 백양중, 거제중앙중, 회덕중, 태안여중, 조치원여중(20+13), 용수중, 창덕중, 김제중앙중, 연무중, 청산중, 서귀중앙여중(21+12), 대전외삼중, 함태중, 서석중, 양구중(22+11)	16
34	천내중, 신길중, 영종중, 잠실중, 선운중(20+14), 한라중, 동변중, 문경서중(21+13), 괴산오성중, 화순동면중(22+12), 줄포중, 삼각산중(23+11)	12
35	북삼중, 한밭여중, 서현중, 부산중앙중(22+13)	4
36	언양중(22+11)+(3, 특별활동 시수)	1

모형을 운영하였으나 일부학교는(4개교, 9.5%) 네 개의 중점모형을 모두 적용하였다. 이밖에 중점모형을 세 개로 표시하긴 했으나 모형명칭이 스포츠선택, 문화예술 등과 같이 일반명칭과 다른 학교(3개교, 7.1%)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학교에서 선택한 중점모형은 진로탐색 단일 중점모형(8개교), 진로탐색+예술・체육 2개 중점모형(6개교), 학생 선택프로그램 단일 중점모형(5개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중점 모형을 혼합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26개교 중 24개교) 진로탐색을 공통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혼합 중점 모형 중에 학생 선택프로그램+예술・체육, 동아리활동+예술・체육, 학생 선택프로그램+동아리활동+예술・체육의 혼합 중점 모형을 선택한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었다.

자유학기제 운영은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공통과정은 주로 오전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교과 수업 시수로 이루어지며, 자율과정은 각 학교의 중점 모형을 중심으로 주로 오후에 배치된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시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기존 교과 수업 시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교과수업 시수 중 일부를 조정하여 자율과정 시수를 운영함으로써,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 보고서에 운영 시수를 명기하지 않은 4개의 학교를 제외한 총 38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총 운영시수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1～36시간으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33.5시간이었다. 이 가운데 공통과정 시수는 19～25시간으로 평균 21.3시간(63.6%) 이었으며, 자율과정 시수는 7～14시간으로 평균 12.2시간(36.4%)이었다. 학교별 시수 차이는 공통과정 시수보다 자율과정 시수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술・가정 시수를 파악할 수 있었던 28개 학교의 기술・가정 수업 시수의 증감 실태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Changes in number of lesson hour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N=28 schools)

H. E. Subject of lesson hours	Name of schools	N
No change	대전서중, 연무중, 잠실중, 신길중, 한밭여중, 회덕중, 양구중, 용수중, 괴산오성중, 서석중, 백양중, 삼각산중, 서현중	13
One hour decreased	선운중, 천내중, 북삼중, 거제중앙중, 창덕중, 대전외삼중, 서귀중앙여중, 동신중, 부산중앙중, 태안여중, 청북중	11
Two hours decreased	화순동면중, 청산중, 함태중	3
Three hours decreased	동변중	1

자유학기제 적용하면서 28개 학교의 기술・가정 수업 시수는 약 절반 가까운 연구학교(13개교, 46.4%)에서는 감축하지 않았으나, 절반이 넘는 학교(15개교, 53.6%)에서 보통 1단위를 감축(11개교)하였으며, 2단위(3개교) 또는 3단위(1개교)를 감축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중에서 기술・가정 수업 시수를 증가한 학교는 전혀 없었다.

2. 연구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연구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운영계획(Ministry of Education, 2013)에 근거하여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공통과정

공통과정은 <Table 5>에서와 같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7개 기본교과 수업에서 실시한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연화, 평가방법 변화, 교과연계 진로학습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통과정의 기본교과 운영실태 중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는 모든 연구학교에서 기본교과별 특성에 맞춰 참여・활동 중심 교육(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실험・실습 체험학습 등), 블록타임을 활용한 융합・연계 수업(STEAM, 주제중심 교과통합), 코티칭(Co-Teaching)-코러닝(Co-Learning) 수업, 직간접 체험교육의 활용을 실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교과통합・융합수업은 주제에 따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국어+음악+도덕), 환경을 지키는 우리(국어+도덕+사회+기술・가정), 생명존중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도덕+사회+수학+기술・가정+영어)를 운영한 학교(신길중), 8개 주제에 따라 교과간 코티칭(Co-Teaching)을 활용한 융합수업(연암중),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방식을 연계하여 과학(실험실습+조사), 영어(프로젝트수업+요리)교과에 적용한 사례(회덕중) 등이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모든 학교에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조화로운 편성 운영이 되도록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수업시수를 증감하고 교과 핵심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M.V.P 교육과정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용수중), 꿈과 끼를 발현하는 핵심역

Table 5. Common curriculum implemented in the pilot schools

Categories		Examples
Improvement in teaching-learning methode	참여와 활동 중심(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실험・실습체험학습 등)	-통합프로젝트 러닝모형(영종중)
	블록타임을 활용한 융합 연계 수업 (주제중심 교과 통합수업 포함)	-교과중점 STEAM교육(부산중앙중) -교과통합 융합수업: 환경을 지키는 우리-국어+도덕+사회+기술・가정(신길중)
	코티칭(Co-Teaching)-코러닝(Co-Learning)	-코티칭 활용 융합수업(연암중)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 교육의 동시 활용	-간접체험과 직접체험방식 연계활용: 과학, 영어(회덕중)
Autonomous curriculum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연화 (수업시수증감, 중간・기말고사 활용)	-공통과정 및 자율과정 시수 조정(전체 학교)
	'핵심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내용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성취기준 기본 + 간학문적 접근 (거제중앙중)
Changes in evaluation	학습과정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 확인 방법과 기준 마련	-자기성찰과 학생활동관찰(언양중) -3단계 '과정형 평가'(창덕중)
Subject related career lesson	교과통합 진로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1교과 1진로 프로젝트수업(동변중) -교과연계 진로통합・융합수업(잠실중, 한밭여중, 태안여중) -교과목별 진로역량강화 교수・학습 모델개발(외삼중)

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태안여중), 체험활동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한 자유학기제 실행방안(청북중) 등 연구학교의 보고서 주제에도 나타나 있다.

평가에 있어서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지필평가 중심의 정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과별로 과정 중심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학기 동안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자기성찰과 학생활동 관찰(언양중), 3단계(학생자율평가, 학부모확인, 교사확인)를 거치는 '과정형 평가'(창덕중), 학교 자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성적표 배부 프로그램 개발(삼각산중)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교과통합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42개 연구학교 중 26개 학교에서 교과별 진로교육 요소를 추출하거나 교과와 연계한 진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별 진로인성요소 중심 체험교수・학습모델을 개발(3개교)하고, 교과와 진로의 연계・융합교육(18개교)을 시도하거나, 교과목별 진로체험활동(5개교)을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1교과 1진로 프로젝트 수업(동변중), 교과와 연계한 진로 통합・융합교육(태안여중, 잠실중, 한밭여중), 교과목별 진로역량강화 교수・학습모델 개발(외삼중), 교과별 진로・인성요소 중심 체험교수・학습모델 개발(서현중, 줄포중) 등이 있다.

2) 자율과정

연구학교에서 시행한 자율과정은 <Table 6>과 같이 진로탐색 활동, 선택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방법 및 주요활동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율과정 중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와 직업' 등의 교과연계 진로학습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연계

Table 6. Free curriculum implemented in the pilot schools

Categories		Examples
Career exploration	교과연계 진로학습 (진로와 직업, SCEP활용 진로독서, 진로검사, 진로포트폴리오)	-두근두근 미래열음1(51차시): SCEP 기반 진로탐색활동 (부평동중) -멈춰서서 마음살핌: 진로교육에 따른 자아성찰프로그램(부평동중) -단계적 독서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2시간 블록운영(대전서중) -에듀팟 활성화를 통한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제작(회덕중) -학년별, 단계별 진로교육프로그램: 빚고, 담고, 세우는 북클럽(천내중)
	직접・간접 진로체험활동 (교과 및 학교행사 연계활동 진로특강/ 진로캠프 외부기관/ 대학탐방 교외 직업체험 교내외 토요 전일제 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축제/진로콘서트 기타 교외 문화체험활동)	-창업과 진로 Wi-Fi 3개반 운영(동신중) -진로비전캠프: 1시간씩 16회 실시(청북중)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활동: 학부모 지원단 구성, 소규모 3박 4일 진로체험(신길중) -홀랜드 직업유형별 진로체험(부산중앙중) -교과별 토요체험활동(부산중앙중) -맞춤형 진로아카데미운영-동아리형태, 4개반, 2시간 블록운영(대전서중) -나의 꿈 발표대회(연암중)
Optional program	수요자 중심 선택 교과 : 교과,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과 연계 운영	-행복수업, 학급뮤지컬(언양중) -예・체능감성프로그램(삼각산중, 천내중) -선택프로그램 연계 진로체험(부평동중, 영종중, 연암중)
Club activity	맞춤형 개설 : 교과연계 및 직업유형별 연계	-행복 찾기 진로탐색동아리: 직업유형별 15개 동아리개설, 3시간 블록운영(연암중) -동아리 중심 나의 꿈 키우기 프로그램(대전서중) -동아리 경진대회: 모의창업, 전시, 공연(거제중앙중)
Arts・Sports	예술・체육 활동의 다양화 및 내실화 : 교과 및 선택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운영	-12개의 특성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한밭여중) -교과통합 뮤지컬 및 공연(수서중, 서귀중앙여중) -2~3개 교과연계 융합예술프로그램(연암중) -예술・체육 융합프로그램(대전외삼중) -24개 반 예・체능 프로그램(서현중) -문화・예술 체험(화순동면중) -1인 1악기(선운중)

진로학습에는 SCEP(창의적 진로개발-학교진로프로그램) 활용 진로탐색, 진로검사, 진로독서, 진로포트폴리오 활동 등을 하였으며,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에는 기본교과 및 학교행사 연계 진로체험, 진로특강, 진로캠프, 교외 직업체험, 대학탐방 등 외부 기관 방문, 토요 전일제활동, 동아리 연계활동, 학교축제 및 진로콘서트, 교외 문화체험활동 등을 하였다. 진로프로그램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본교 교사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은 평일 5~7교시 블록수업, 토요일, 시험기간 등을 활용한 반일 또는 전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을 하였다. 진로활동의 참가단위는 개인, 동아리, 학급 전체 등 활동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학교의 직업체험활동은 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하거나 (신길중) 학생 스스로 체험 장소를 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는 경우(거제중앙중)도 있었다.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종래의 교과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은 진로, 교과, 동아리, 예술·체육활동, 방과후 활동 등과 결합하여 30개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었다. 대다수의 학생 선택프로그램 참여형태는 동아리별, 직업흥미 유형별로 조직하여 참여하거나 개인 희망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프로그램 역시 본교 교사 외에 외부 전문가와 협업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었으며, 한 프로그램 당 참여 인원도 적정한 규모로 조정이 가능하였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행복수업(언양중), 예·체능 감성프로그램(삼각산중, 천내중), 학급뮤지컬(언양중), 선택프로그램과 연계한 진로체험(부평동중, 영종중, 연암중), 동아리 및 방과후 활동과 연계한 선택프로그램 활용 교과심화교육(거제중앙중) 등이 있었다.

동아리는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의 자치적인 모임으로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에게 또래 친구들과 협동하여 관심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개 학교에서 개설한 동아리활동은 교과활동, 진로활동, 스포츠활동, 예술활동, 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학생활동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부 학교(문경서중, 서현중)에서는 주말을 활용한 자율동아리를 상시 운영하거나 방과후 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화순동면중, 천내중)하기도 하였다.

예술·체육 활동은 예·체능 교육을 다양화,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예·체능 교육의 다양화를 파악하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교과수업에서 실행한 내용과 선택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운영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모든 학교에서 예술·체육 활동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음악, 미술, 체육교과를 모두 개설하였고, 일부 학교에서 체육활동과 함께 음악과 미술을 선택적으로 개설하여 오후 일과시간에 블록으로 편성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18개 학교의 프로그램에서 예술·체육 활동의 구성 형태와 내용을 다양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에서 실행한 내용으로는 12개의 특성화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한밭여중), 교과통합 뮤지컬제작 및 공연(수서중), 뮤지컬(서귀중앙여중), 교과연계 융합예술프로그램(연암중), 예술·체육 융합프로그램(대전외삼중), 24개반 예·체능 프로그램 개발(서현중), 문화·예술체험(화순동면중), 1인 1악기(선운중), 예·체능캠프(조치원여중), 예·체능 감성프로그램(천내중), 예·체능 선택프로그램(삼각산중, 부산중앙중, 태안여중, 서면중, 함태중, 연무중, 동변중, 신길중) 등이 있다.

3. 가정교과 실행 사례

1) 가정교과의 공통과정 운영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실시된 가정교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중 공통과정이나 자율과정에서 가정교과와 관련한 활동을 하나라도 실행한 학교는 전체 42개교 중 3개교를 제외한 39개교(92.9%)였다. 공통

과정에서 가정교과를 운영한 것으로 명시된 학교는 17개교(40.5%)였으며, 22개교에서는 가정교과의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공통과정에서 가정교과 운영을 파악할 수 있었던 17개 학교의 운영형태를 자율과정과 연계해서 보면 <Table 7>과 같다.

공통과정에서 가정교과의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한 17개교는 한 학교만 제외하고 모두 자율과정을 주로 1개(12개교)영역 내지 2개(3개교) 또는 3개(1개교) 영역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과정에서 가정교과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자율과정에서 진로과정이나 선택프로그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함께 운영한 형태인 것이다. 가정교과의 공통과정을 실시한 학교에서 자율과정 중 예술・체육 활동을 함께 운영한 학교는 없었다.

자유학기제 공통과정 운영의 네 측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와 평가 방법의 변화는 학교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교과연계 진로학습은 각 교과별로 특징 있게 운영되었다. 따라서 가정교과의 공통과정 운영은 가정교과 공통과정을 명시한 학교(17개교)를 대상으로 교과별 특징이 나타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교과연계 진로학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Table 8>).

공통과정에서 가정교과의 수업은 가정교과를 타교과와 연계한 교과융합 수업(5개교)으로 구성하거나, 진로 연계 수업(4개교), 주제중심 교과통합(3개교), 학생활동 참여중심 수업(2개교), STEAM교육(2개교), 학생선택 프로젝트 학습(1개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융합 수업은 '부추전 만들기'를 주제로 수학과 가정 영역을 연계한 수업과 '환경을 지키는 우리', '청소년의 스트레스', '미래건축 만들기' 등과 같이 학습 주제에 맞는 여러 교과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연계하여 시도한 수업이 이루어졌다.

진로연계 수업은 가정교과의 영역에서 진로교육과 관계되는 내용을 수업에 적용한 것으로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업과 '나의 꿈・끼를 표현한 옷 디자인', '내가 디자인한 주택, 친환경 목제품 디자인 및 만들기, 광고제작 및 홍보, 소비자 문제 진단 및 해결' 등의 다양한 주제의 수업이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주제 중심 교과통합 수업은 기술과 가정의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청소년기의 영양섭취기준에 맞는 식단 작성하기', '발명기법 이용하여 생활용품 만들기', '스파게티구조물 만들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생활동 참여 중심 수업은 '한복입기실습', '패션디자이너와 의상코디네이터 직업탐구 및 디자인하기', '요리' 등의 주제로 주로 의생활과 식생활의 실습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STEAM교육은 기술과 가정을 결합한 문제해결 수업과 의생활의 '나만의 옷차림' 단원을 과학, 사회, 미술교과와 연계하여 구성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생선택 프로젝트 학습은 '쿠키로 사랑을 전해요'라는 주제로 식생활 중심의 실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미래 핵심역량의 강화는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져 온 것으로 특히 자유학기제 체제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발한

Table 7. Type of common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N=17 schools)

Common curriculum type	Number of schools
공통과정만	1
공통과정+자율과정(진로탐색)	4
공통과정+자율과정(선택프로그램)	5
공통과정+자율과정(동아리)	3
공통과정+자율과정(진로탐색+선택프로그램)	2
공통과정+자율과정(진로탐색+동아리)	1
공통과정+자율과정(진로탐색+선택프로그램+동아리)	1

Table 8. Common curriculum implemented in home economics

H.E. common curriculum	Name of school	Examples
Integrated lesson with other subjects	동작중	● 교과별 융합수업: 부추전 만들기(수학+가정영역) ● 교과연계 창의프로그램: 생활 발명품 만들기(주택모형 만들기)(■1★1◆1)
	신길중	● 교과 통합 융합수업 : 환경을 지키는 우리(국어+도덕+사회+기술・가정), 생명존중으로 사회(도덕+사회+수학+기술・가정+영어)(■2)
	부산중앙중	● 교과 융합수업 : 청소년의 스트레스(국어+도덕+사회+가정영역)(■3)
	연무중	● 교과 융합, 연계수업 : 가정영역: 탐구활동형, 미래건축 만들기(■4◆2), 행복을 나누는 조별요리 경연(■5★2)
	함태중	● '핵심성취기준' 교육과정 재구성, 융합교육. 가정영역(■6)
Career related lesson	서현중	● 교과별 진로・인성 요소 중심의 체험 교수 학습 수업 모델 개발 및 적용 **: 기술・가정과 교육과정(Ⅲ. 진로와 생애 설계)(■7◀1)**
	영종중	● 교과특성에 맞는 통합프로젝트 러닝 모형 구안・적용 : 교내 수업개선 연구대회 개최(기술・가정+미술. 주제: 가구 만들기), **진로와 직업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구안 적용: 기술・가정(1. 생애설계와 진로 탐색)**(■8◆3◀2)
	줄포중	● 진로인성교육 지도안 : 나의 꿈・끼를 표현한 옷 디자인, 내가 디자인한 주택, 친환경 목제품 디자인 및 만들기, 광고제작 및 홍보, 소비자 문제 진단 및 해결(■9●1◆4▶1)
	한라중	● 진로교육통합지도안 작성(가정영역): 상황에 맞는 옷차림)(■10●2)
Theme-based integrated lesson	용수중	● 교과별 주제중심 체험학습: 나는 요리왕(학급별 실습)(■11★3)
	천내중	● 통합교육: 기술・가정 교육내용 재구성(■12)
	청북중	● 주제중심교과통합(기술・가정) : 청소년기의 영양섭취기준에 맞는 식단 작성하기, 조리실습하기(■13★4), 기초 바느질하기(■14●3), 발명기법 이용하여 생활용품 만들기(■15), 스파게티구조물 만들기(■16◆5)
Students' activity centered lesson	거제중앙중	● 학생 참여활동 수업 : 한복입기실습, 패션디자이너와 의상코디네이터 직업탐구 및 디자인하기(■17●4)
	청산중	● 학생 활동・참여 중심 수업 모형 적용(가정영역) : 가족의 이해 단원(역할극)(■18◀3), 가족의 생활단원(요리)(■19★5), 가정 생활의 실제 단원(청바지 만들기)(■20●5)
STEAM	괴산오성중	● 수업개선을 위한 STEAM교육 및 평가 자료개발 : 교과 STEAM 교육 수업공개(기술・가정-문제해결과 발명 3차시)(■21), 다양한 체험 활동과 연계한 융합교육(외부기관연계-음성 풀무원, 두레식품 현장체험)(▲1★6)
	동변중	● 융합교육(STEAM) : 나만의 옷차림(가정영역+과학+사회+미술), 아동시설 목도리 전달(■22●6)
Project lesson	창덕중	● 희망학생 선택형 LIT 프로젝트 학습: 쿠키로 사랑을 전해요(■23▲2★7)

*운영주체(누계 횟수) ■교사 주도(23), ▲외부강사 주도(2);
**내용영역(누계 횟수) ★식(7), ●의(6), ◆주(5), ◀가족(3), ▶소비(1)

활동이 강조된다. 따라서 가정교과의 공통과정 운영에서는 교과간・교과내 통합 및 융합 수업의 실시, 적극적인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이며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학교의 가정교과 공통과정운영에서 운영주체와 가정 교과의 내용 영역별 프로그램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운영주체는 외부강사 주도(2)보다 교사 중심(23)의 교과 운영이 많았고, 교과의 내용 영역은 식생활(7), 의(6), 주(5), 가족(3), 소비(1)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2) 가정교과의 자율과정 운영

가정교과의 자율과정은 총 38개 연구학교에서 공통과정과 함께 운영하거나(16개교) 자율과정만 운영한(22개교) 것으로 나타났다. 이 38개 학교의 가정교과 자율과정 운영형태를 종합하면 <Table 9>와 같다.

가정교과의 자율과정 운영 형태는 자율과정을 하나만 운영한 학교(24개교)와 2개(12개교) 혹은 3개(2개교)를 운영한 학교로 나눠볼 수 있다. 자율과정을 한개 영역만 운영한 경우는 예술・체육활동을 제외하고 학교별로 진로탐색(9개교), 선택프로그램(9개교), 동아리 활동(6개교)을 고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중 절반(12개교)은 공통과정에서 가정교과수업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나 절반은 교과수업을 안했거나 교과수업에 대한 언급 없이 자율과정의 영역 하나만을 운영한 경우이다. 자율과정을 두 가지 영역에서 운영한 형태는 진로탐색+선택프로그램(8개교), 진로탐색+동아리활동(3개교), 선택프로그램+동아리활동(1개교)으로 주로 진로탐색과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가 많았다. 이들 중 12개교는 자율과정만 운영한 반면, 3개교는 공통과정에서 교과수업도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다. 자율과정 세 가지를 모두 혼합한 형태는 예술・체육 활동을 제외한 진로탐색+선택프로그램+동아리활동(2개교)을 하였는데 이 중 한 학교는 교과수업과 함께, 한 학교는 자율과정만 3개 영역을 운영한 경우이다.

각 연구학교별로 다양하게 실시한 구체적인 가정교과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진로탐색, 학생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운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Table 10～12>).

(1) 진로탐색 운영

자율과정에서 진로탐색을 운영한 22개교의 운영 실태는 <Table 10>과 같다.

진로탐색 활동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보다는 주로 교외 체험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교내에서 이루어진 진로탐색 활동은 교과통합 진로교육이나 교과연계 직업체험, 주말 진로캠프, 진로와 연계한 동아리 방과 후 활동, 학교 행사와 연계한 진로 탐색 등이 이루어졌다. 교외에서 이루어진 진로탐색 활동은 전일제 진로체험으로 가정교과 직업과 관련된 치즈마을, 천연 염색, 전통음식 체험 지역 등을 탐방하였고 제과 제빵,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에 관련된 직업인들을 만나보는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대학 탐방 프로그램으로는 생활과학대학 방문, 요리나 뷰티 관련 학과

Table 9. Type of free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Free curriculum type	N (Free cur. only + both free & common cur.)
진로탐색 활동 (+ 공통과정 4개교)	9 (5 +4)
선택프로그램 활동 (+ 공통과정 5개교)	9 (4 +5)
동아리 활동 (+ 공통과정 3개교)	6 (3 +3)
진로탐색+선택프로그램 (+ 공통과정 2개교)	8 (6 +2)
진로탐색+동아리 활동 (+ 공통과정 1개교)	3 (2 +1)
선택프로그램+동아리 활동	1 (1 +0)
진로탐색+선택프로그램+동아리 (+ 공통과정 1개교)	2 (1 +1)
총계	38 (22 +16)

Table 10. Career exploring activities of free curriculum in home economics

Name of school	Examples of career exploring activity
잠실중	●12개 프로그램: 바리스타, 요리실습(★1)
영종중	●다양한 체험중심 진로캠프 운영: 행복드림 주말진로캠프 운영(도전 제빵왕)(★2) ●자율과정 편성 운영 : 인천지역교과 관련직업체험(기술・가정-대우자동차, 동서식품, 현대제철, 양재학원, 잡월드체험,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헌혈원 방문 견학)(★3●1)
대전 외삼중	●진로활동: 제과제빵 만들기(▲1★4)
함태중	●진로체험: 제빵사, 바리스타(각 1회)(▲2★5)
양구중	●교과통합 진로교육: 나만의 식품직업 정리하여 만들기(■1★6)
화순 동면중	●교과연계직업체험: 김치 담그기(2시간)(▲3★7)
순천 이수중	●전일제진로체험 : 호텔외식조리(▲4★8), 곡성치즈마을(▲5★9), 여수 용문도예(천연염색체험)(▲6●2)
청산중	●현장체험: 바리스타(▲7★10), 제빵사(▲8★11)
서석중	●3학년 대학연계 진로탐색: 생활과학대학(▲9●3★12◆1◀1▶1)
동신중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과제빵체험(▲10★13), 시장보기(▲11▶2)
연암중	●직업체험학습: 바텐더(▲12★14, 인테리어디자이너(▲13◆2), 영양사(▲14★ 15)
부산 중앙중	●토요체험활동: 부산국제요리박람회참가(▲15★16)
용수중	●교외 진로체험: 이대명과(과자)(★17) ●진로체험부스: 푸드관(바리스타, 와인메이킹)(★18), 예술체험관(네일아트)(●4)
문경서중	●전일제 맞춤형 진로체험 : 포항 떡체험관, 양평 임실치즈체험장 일원, 영양 두들마을 전통음식체험(▲16★19) ●직업체험활동: 대학탐방(호텔조리)(▲17★20) ●진로와 직업시간 체험: 나는야 제빵왕(1회)(▲18★21)
북삼중	●대학탐방: 세계요리체험, 뷰티디자이너 체험(★22●5▲19)
언양중	●전일제 직업체험활동 (32개)(▲20) : 제과제빵사, 커피 바리스타, 요리사,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아트, 한복 디자이너(●6★23) ●진로콘서트 체험부스 운영: 카페어울림, 네일아트, 양말공예반, 케익만들기(●7★24)
연암중	●진로탐색프로그램 : 직업체험학습(영양사)(▲21★25),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요리사,바리스타)(▲22★26), 일터체험(1일 4시간), 요리학원 및 미용학원 견학(제과제빵 실습, 요리, 커피바리스타,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디자이너, 네일 아트 실습)(★27●8▲23), 테마별 진로 체험(염색공예가, 1일 4시간)(▲24●9), 부산미용고초청 진로체험(메이크업, 네일아트, 1일 2시간)(▲25●10)
거제 중앙중	●선택 동아리 방과후 진로와 연계: 모의 창업(6개 가정교과 관련) ●개인 및 단체 직업 체험: 가정과 관련 직업 다수 ●전일제 진로 직업 캠프: 직업 전문인 특강(요리사)(▲28★57)
창덕중	●꿈 동아리별 진로체험(전일제로 2회 진행) : 요리조리 세상 엿보기 동아리(농업체험 및 고구마수확, 이마트 시장보기 및 금융교육)(★29▶3)
줄포중	●프로와 아마추어의 만남: 제과제빵, 바리스타, 네일아트 관련 직업인(▲27★30●11) ●지역연계 진로문화예술 체험: 온고을 헬시푸드(▲28★31)
김제 중앙중	●학교 행사 연계 진로 탐색: 먹거리 품평회(★32) ●진로 탐색 직업 체험: 피자만들기(▲29★33)
조치원 여중	●진로의 날 캠프: 바리스타(▲30★34), 제빵사(▲31★35), 피부관리(▲32●12) ●전일제 한국영상정보대학 진로직업 체험활동 : 헤어디자이너(▲33●13), 피부미용사(▲34●14)

*운영주체(누계 횟수) ■교사 주도(1), ▲외부강사 주도(34)
**내용영역(누계 횟수) ★식(35), ●의(14), ◆주(2), ◀가족(1), ▶소비(3)

체험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가정교과와 관련된 진로탐색 활동의 운영은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외부강사가 주도(34)하였다. 이것은 진로탐색 활동이 교내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외부 체험활동이 많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탐색 활동도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로탐색 활동에서 가정교과 내용 영역은 식생활(35) 관련 활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의(14), 소비(3), 주(2), 가족(1)생활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학생 선택프로그램 운영

가정교과에서 자율과정 중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한 19개교의 운영 실태는 <Table 11>과 같다.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한 선택활동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한 선택프로그램은 주로 직업 관련 활동으로 요리 활동이 가장 많았다.

동아리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외부 전문가와 협업 프로그램, 학생자율선택 진로체험 프로그램, 학생중심 실천적 선택 프로그램, 자유 선택

Table 11. Students' optional programs of free curriculum in home economics

Name of school	Examples of students' optional program
동작중	●선택활동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격주 시행): 요리반(■1★1)
삼각산중	●학생선택 예술 활동: 요리(강사)(▲1★2) ●직업관련 동아리 활동: 요리(■2★3)
수서중	●외부전문가와 협업프로그램 : **녹색학교만들기(녹색구매실천, 자원재활용, 건강한 녹색밥상)**(▶1★4)
신길중	●선택프로그램 : **녹색학교 만들기 14주(녹색학교만들기란, 에너지와 녹색소비, 물과 녹색소비, 녹색학교, 녹색가정, 녹색마을, 안전한 먹거리와 녹색소비, 녹색 직업. 녹색학교 만들기와 문화 등)** (▶2★5), 요리 탐구반(★6)
부평동중	●두근두근 미래열음 : **학생자율선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창의공작(총 30차시): 건축학개론(살고 싶은 집 그리기, 살고 싶은 방, 가구 그리기, 내가 살고 싶은 집 모형 만들기1.2, 나의 집 소개하기, 방과 가구 모형만들기1. 2, 집과 방, 가구의 결합**(◆1) , 행복채움분과 자율선택형프로그램 운영(문화-바리스타, 제과제빵)(■3★7)
괴산오성중	●학생중심 실천적 선택 프로그램 개발(3/4분기 6개반, 4/4분기 6개반) : 뉴스읽기(사회+기술・가정+영어+미술+음악), 주거문화탐구(기술・가정+수학+과학+사회+미술)(■4◆2), 영상스토리 창작(기술・가정)
서면중	●맛있는 만남(각18주 36시간): 퓨전요리만들기, 쿠키굽는소리(■5★8)
양구중	●쿡쿡 요리반(8회차 16차시)(▲2★9)
청북중	●더불어 행복 프로젝트: 김장담그기, 김장나눔 활동 전개(■6★10)
서석중	●스페셜데이: 케익 만들기(■7★11), ●방학캠프: 화순 치즈 체험학교(▲3★12)
동신중	●요리이야기(■8★13)
백양중	●토요 방과후 학교: 토요 제과제빵반(▲4★14)
용수중	●자유선택프로그램: 직업체험 요리교실(■9★15) ●선택형 방과후 활동: 행복요리교실(■10★16)
문경서중	●선택프로그램: 요리실습(한식요리)(■11★17)
북삼중	●선택프로그램(3시간 블록운영, 총 7회 21시간): 요리반(■12★18), 퀼트반(■13●1)
천내중	●적성을 고려한 선택형 교과프로그램: 식생활 문화 탐구(■14★19) ●지역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음식 만들기(요리교실, 김장담그기 체험)(▲5★20)
거제 중앙중	●선택형 교과프로그램: 가정소품반(■15●2), 요리반(■16★21), 바리스타(▲6★22) ●방과후 연계 집중과 심화: 가정소품(■17●3), 일품요리(■18★23)
창덕중	●선택프로그램: 요리조리 세상 엿보기(■19★24)
조치원여중	●자율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 퀼트반(●4)

*운영주체(누계 횟수) ■교사 주도(19), ▲외부강사 주도(6)
**내용영역(누계 횟수) ★식(24), ●의(4), ◆주(2), ◀가족(0), ▶소비(2)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명칭을 붙이고 있었다.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프로그램인 '녹색학교 만들기'는 '녹색 구매 실천, 자원 재활용, 건강한 녹색 밥상' 등의 내용으로 가정교과의 내용 영역을 골고루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학생자율선택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창의공작 시간에 이루어진 '건축학개론' 역시 '살고 싶은 집 그리기, 살고 싶은 방, 가구 그리기' 등의 총 30차시 수업으로 일회적 체험이 아닌 지속적 프로그램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였다. 학생중심 실천적 선택 프로그램은 뉴스 읽기나 주거문화 탐구, 영상스토리 창작 등의 활동을 하였고, 방학 캠프나 토요 방과 후 학교 활동으로는 화순 치즈 체험학교, 토요 제과 제빵반 등의 요리 실습 위주의 활동을 하였다. 자유 선택 프로그램과 방과 후 활동은 요리 관련 활동이 가장 많았고 자율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퀼트반도 진행되었다.

가정교과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진로탐색활동과 달리 교사 주도(19)가 외부강사 주도(6)보다 많았으며, 프로그램내용 영역은 식생활(24)이 대부분이었고 일부가 의(4), 주(2), 소비(2) 생활 관련 내용으로 가족영역의 프로그램은 실행된 것이 없었다.

(3) 동아리활동 운영

가정교과에서 자율과정 중 동아리활동을 운영한 12개교의 운영 실태는 <Table 12>와 같다.

자율과정 중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은 요리 활동과 십자수반 활동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동아리 직업체험은 의상 디자이너와 요리사 등의 직업 체험활동을 하였다. 동아리 주체 현장체험 활동으로는 공주 임실 치즈 스쿨이나 학교 근교의 과수원 체험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동아리와 연계한 선택 집중학습으로는 바리스타, 퀼트, 비누공예, 리본공예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동아리활동은 교사 주도(10)가 외부강사 주도(7)보다 다소 많았고, 내용 영역은 주로 식생활(12)과 의생활(7) 위주였으며, 주・가족・소비생활 영역의 동아리 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가정교과에서 실시한 세 가지 자율과

Table 12. Club activities of free curriculum in home economics

Name of school	Examples of club activity
한밭중	●동아리(10개 강좌: 요리반(■1★1)
회덕중	●회덕 꿈 동아리(1차 직업체험): 의상디자이너, 요리사(■2●1★2)
대전외삼중	●동아리 프로그램: 공예(십자수반)(■3●2)
대전서중	●동아리 중심 나의 꿈 키우기 : S-happy 동아리 활동(요리반)(★3), 동아리 주체 현장 체험 활동 활성화(요리・서비스 동아리-공주 임실치즈 스쿨, 대전 근교 과수원 체험)(▲1★4)
서현중	●맞춤형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십자수 동아리 활동(17차시)(■4●3)
서천서면중	●요리자격증반(17주, 17차시)(▲2★5)
함태중	●동아리활동: 요리반(▲3★6)
화순동면중	●방과후활동(동아리형식): 요리(■5★7)
동변중	●동아리활동: 요리반(■6★8)
연암중	●행복찾기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요리(■7★9), 십자수(■8●4)
거제중앙중	●동아리와 연계한 선택 집중학습 : 바리스타(▲4★10), 퀼트(▲5●5), 비누공예(■9●6), 리본공예(▲6●7)
한라중	●요리 체험반 동아리: 요리(■10★11), 커피실습(▲7★12)

*운영주체(누계 횟수) ■교사 주도(10), ▲외부강사 주도(7)
**내용영역(누계 횟수) ★식(12), ●의(7), ◆주(0), ◀가족(0), ▶소비(0)

정 활동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 운영은 교사가 주도(30)한 경우보다 외부강사가 주도(47)한 경우가 1.5배 정도 더 많았다.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은 교사주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진로탐색처럼 외부 체험활동이 많은 프로그램은 거의 전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정교과 내용영역별로 보면, 세 자율과정의 활동내용은 모두 식생활(71)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의생활(25)이었고, 주(5)・소비(4)・가족(1)생활은 소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식생활 활동 편중 현상은 특히 선택 프로그램에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순이었다. 이것은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3)의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에서 학생의 선호도가 요리실습, 바리스타, 패션디자인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와 같이 각 연구학교에서 학생의 요구에 기초해 가정교과의 자율과정을 운영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가정교과가 자유학기제에 적극 대처할 시사점을 찾고자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시범 운영 보고서 42개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아울러 연구학교 활동 중 가정교과와 관련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형태와 실행사례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2개 연구학교는 95% 이상이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중점모형은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두 세 개의 모형을 함께 적용한 학교가 많았다.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시수(평균 33.5시간)는 공통과정 시수와 자율과정 시수가 약 2:1이었으며 학교별 편차는 자율과정에서 더 컸다. 가정과 수업 시수는 시수파악이 가능한 학교의 절반 이상에서 1단위 이상 감소하였는데 수업시수 감소는 가정과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교사별로 시수유지에 유념하고 자율과정의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공통과정 운영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조화로운 편성 운영을 도모하였고,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과별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교과통합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교육과정에 진로 단원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가정교과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과관련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자율과정 프로그램은 학생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 방과후 활동,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 공통과정에서 가정교과를 시행한 학교는 2/5정도였는데(17개교), 이 학교는 거의 모두 가정과관련 자율과정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가정교과의 공통과정 수업형태는 교과융합 수업, 진로연계 수업, 주제중심 통합 수업, 학생활동 참여중심 수업, STEAM 교육, 학생선택 프로젝트 학습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가정과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자유학기제의 목적인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 지향적 역량 함양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타교과와의 융합수업은 교과간 내용 융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어 교사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 교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융합 및 통합 수업안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진로탐색과 생애 설계' 단원이 제시되어 있는 가정교과는 진로단원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이 단편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의 관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강점을 적극 발휘할 필요가 있다.

가정교과의 자율과정 운영은 공통과정을 운영한 학교에서는 물론 공통과정 없이 자율과정만 운영한 학교도 많았

는데, 자율과정을 하나만 운영한 학교는 진로탐색, 선택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고르게 실행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절반은 공통과정에서 가정교과를 함께 운영한 경우이다. 자율과정을 두 가지 이상 운영한 경우는 진로탐색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가정교과에서는 공통과정은 물론 자율과정에서도 진로관련 활동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 진로탐색 활동은 주로 교외 체험활동으로 가정교과 직업관련 지역 탐방(치즈마을, 천연 염색, 전통음식 체험 지역 등), 관련 직업인들과의 만남(제과 제빵,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생활과학대학 방문(요리나 뷰티 관련 학과 등)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요리직업 관련 활동과 녹색학교 만들기, 건축학개론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진행과 방학 캠프나 토요 방과후 활동(화순 치즈 체험학교, 토요 제과제빵반 등)의 요리실습 위주 활동을 하였다. 동아리 활동은 요리반과 십자수반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동아리 직업체험(의상 디자이너와 요리사 등), 동아리 주체 현장체험 활동(공주 임실치즈 스쿨, 학교 근교의 과수원 체험활동 등), 동아리와 연계한 선택집중학습(바리스타, 퀼트, 비누공예, 리본공예 등)이 진행되었다. 가정교과 관련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가정교과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심화된 학습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동아리활동도 진로체험 활동과 연계한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과 운영 중 공통과정의 교과수업은 주로 교사가 진행하였으나 자율과정은 외부강사 활용이 많았는데 특히 외부체험이 많은 진로탐색 활동은 전적으로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었다. 자율과정 중 선택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은 주로 교사에 의해 진행되어 진로탐색 활동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i et al.(2014)과 Kim(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진로체험이 외부 강사를 초빙한 교내 활동이나 외부 체험활동으로 인해 단기적이며 일회적인 활동으로 끝날 수 있고, 예산 지원이 어려운 지역 학교에서는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과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가정교과에서 영역별 활동 빈도수는 공통과정보다 자율과정, 특히 선택프로그램에서 차이가 매우 두드러졌다. 두 과정 모두 식생활 영역의 빈도수가 가장 높아서 다른 영역을 모두 합한 활동 수보다 더 많았다. 식생활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활동은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리 등으로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후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향후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활동 등 다양한 자율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녹색학교 만들기' 선택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에게 개인과 가정생활의 통합적 경험을 위해 가정교과 내의 다양한 영역을 고루 아우를 수 있는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단원과 연계한 선택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42개 1차 연구학교의 운영 실태를 연구학교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가정교과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교육효과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당 학교의 가정교과 관련 교수・학습과정안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의 가정과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와 적용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연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시행이 일반화됨에 따라 자율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폭넓은 요구를 조사하여 가정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Chi, E. L., Won, H. H., Min, K. S., & Sohn, W. S. (2013). A study of evaluation methods for middle school Free

Semester Syste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R 2014-07.

Choi, S. D., Shin, C. K., & Park, K. Y. (2013).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osition Paper 2013-01-1l.

Choi, S. D., Lee, S. E., So, K. H., Kim, B. C., Park, S. Y., & Hong, C. N. (2014). Comprehensive Report on Case Studies of Pilot Schools Implementing the Free Semester Program in 2013,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R 2014-19.

Jeffers, G. (2013). Ireland's Transition Year: Insights and challenges, *Proceedings of the 2013 2nd Career Education International Forum* (New educational policy for 「Free Learning Semester: Toward revitalization of career exploration oriented approach), Seoul: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3-42.

Jeong, K. S. (2013). Approach to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Subjects Teaching in Middle School,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7(3), 1-30.

Jin, M. S. (2013). 자유학기제: 주요 쟁점과 이슈, *Proceedings of the 1st Career Education Forum*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Seoul: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55-84.

Jones, A. (2013). Reflecting on the UK GAP Year: Insight for South Korea's 'Free Learning Semester', *Proceedings of the 2013 2nd Career Education International Forum* (New educational policy for 「Free Learning Semester: Toward revitalization of career exploration oriented approach), Seoul: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50-80.

Hong, H. J., Lim, Y. N., & Jang, S. Y. (2013). An inquiry on the Loose Semester for career exploratio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survey of stakeholders. *The Korea Educational Reveiw*, 19(2), 33-68.

Katznelson, N. (2013). Denmark and the Gap Years, *Proceedings of the 2013 2nd Career Education International Forum* (New educational policy for 「Free Learning Semester: Toward revitalization of career exploration oriented approach), Seoul: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11-136.

Kim, E. J. (2013). Career educa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application plan in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3). 105-121.

Kim, H. C. (2013).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 및 시사점,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현안보고 CP 2013-01-1.

Kim, J. S. (2013a).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제7회 청람교육포럼 제22회 KICE 교육과정 · 평가 정책포럼 자료집*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행과 과제). ORM 2013-44, 15-42.

Kim, J. S. (2013b). Comparison of curriculums between 'Transition Year' in Ireland and 'Free Learning Semest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3(6), 163-183.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결과. 연구자료 CRM 2013-85.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성과보고서 42부. Center for Supporting Free Learning Semester, Available at https://freesem.kedi.re.kr/freesem/blog/board/homepage_school_board_list_inform.do?categoryNo=2. 2014. 3. 31.

Kwak, B. S. (2013). What's a Free Learning Semester? *Proceedings of the 1st Career Education Forum*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Seoul: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3-16.

Lee, J. Y. (2013a). Free Learning Semester (FLS) of Korea. *Proceedings of the 2013 2nd Career Education International Forum* (New educational policy for 「Free

Learning Semester: Toward revitalization of career exploration oriented approach), Seoul: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73-231.

Lee, J. Y. (2013b). 성공적인 자유학기 운영방안: 진로탐색 중심접근, *Proceedings of the 1st Career Education Forum*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Seoul: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9-50.

Ministry of Education(2013. 5. 28).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Ministry of Education.

Park, S. C. (2013), 호주IBP프로젝트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자유학기제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현안보고 CP 2013-01-4.

Shin, C. K. (2013). 자유학기제 성공을 위한 제도적 방안 탐색: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제7회 청람교육포럼 제2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포럼 자료집*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행과 과제). ORM 2013-44, 1-1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교과가 자유학기제에 적극 대처할 시사점을 찾고자 첫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시범운영 보고서 42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주요 현황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실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활동 중 가정교과와 관련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 형태와 실행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학교는 중점모형을 한 개 또는 두 세 개씩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수파악이 가능한 총 28개 연구학교 중 15개 연구학교에서 가정교과 수업 시수가 감소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공통과정 운영은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별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을 시도한 반면, 교과 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자율과정 운영에서 진로활동은 모든 연구학교에서 참여 단위, 시기, 방법, 운영시간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은 진로, 교과, 동아리, 예술·체육활동, 방과후 활동 등과 결합하여 진행되었고, 선택프로그램 참여형태는 동아리별, 직업흥미유형별, 개인 희망에 따라 선택하였다. 동아리활동은 교과활동, 진로활동, 스포츠 활동, 예술활동, 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예술·체육활동은 음악, 미술, 체육교과 모두 또는 부분 개설되었으나 활동내용은 주로 교과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일부(18개 학교)에서만 선택 및 체험활동 중심의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셋째, 가정교과는 공통과정 운영을 명시한 17개 학교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교과연계 진로학습에서 교과 융합 수업, 진로연계 수업, 주제중심통합 수업, 학생활동 참여중심 수업, STEAM 교육, 학생선택 프로젝트 학습 등이 이루어졌다. 가정교과의 자율과정은 공통과정과 함께 혹은 자율과정만 운영하기도 하였다. 자율과정 중 진로탐색은 가정교과 직업관련 지역탐방, 직업인들과의 만남, 생활과학대학 방문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요리 직업관련 활동, 녹색학교 만들기, 건축학개론 등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활동이, 동아리 활동은 요리와 십자수반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통과정의 가정교과수업은 주로 교사가 진행하였으나 외부체험이 많은 진로탐색 활동은 전적으로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가정교과의 활동프로그램은 식생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자유학기제에서 가정과 교육은 수업 시수가 감축되지 않는 노력과 함께 공통과정의 교과 수업 방법의 다양화와 아울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과정 선택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가 주도할 수 있는 교과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07월 22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08월 01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09월 22일